

지역 매 아리

# “지평선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완주군, 장애인가정 여행 지원

완주군드림스타트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에서 진행하는 장애인가정 여행 지원사업에 선정돼 이듬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가정에 가족여행의 추억을 선물했다.

완주군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에서 진행하는 장애인가정 여행지원사업인 ‘기아자동차와 함께 하는 행복한 초록여행’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 여건이나 신체적 제약 때문에 이듬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가정에 차량과 운전기사, 유류비, 여행경비를 제공해 가족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드림스타트는 이사업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가정을 선정해 행복한 가족여행의 추억을 선물했다.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신모씨는 수화통역사를 통해 “완주군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인사를 전했다.

정재조 교육이동복지과장은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가정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꿈과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완주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대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완주군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9월 28일) 부모(부도 사망 시 학생 본인)가 2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2015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의 등록금 대출자다.

지원방식은 올해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계좌로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월 한 달간 완주군청 교육이동복지과(1.063-290-2273), 읍면사무소, 완주군청 홈페이지(www.wanju.go.kr)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에 대출이자를 지급한다.

정재조 교육이동복지과장은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학생들의 학업의지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 장치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화려한 폐막  
세계적인 축제 면모  
지역발전 기여 호평

온 가족 웃음 가득한 체험왕국,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가 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가을엔, 오감(五感)만족, 오락(五樂)축제!’라는 슬로건으로 한국 농경문화의 중심지 벽골지에서 펼쳐진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5개분야 66개 프로그램으로 무장해, 백 한가지 체험, 백 한가지 즐거움으로 관광객을 맞이했다.

올해로 스무해를 맞이한 김제지평선축제는 성년이 된 해를 기념해 불거리, 불거리, 먹거리를 확충하고 관광객 편의시설과 주차장, 교통체계를 개편했으며, 개·폐막식 의전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불거리 위주의 행사진행으로 관광객을 위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큰 점수를 받고 있다. 한국 전통농경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김제지평선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벽골제 전설 뽕놀이’,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쌍룡 햇불 퍼레이드’에 대동성을 가미해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였다.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모라모라! 아궁이 쌀밭짓기 체험’, ‘도롱이 워터터널’, ‘대동 연날리기’, ‘황금들녘 달구지 여행’

등의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장으로, 어른들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육성축제로의 도약과 함께 준비한 아시안데이, 러시아데이는 그동안 축제장을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 농경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지평선축제를 찾은 국내 관광객에게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의 면모를 드러냈다.

특히 체험과 더불어 불거리 연출에도 큰 성과를 드러냈다. 도내 최초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지평선 가을 하늘을 수놓아 장관을 연출했으며, 벽골제를 밝히는 달빛 미러볼을 통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지평선의 밤을 선물했고, 벽골제 소원 한지등, 희망 LED풍선 날리기, 지평선 등불과 같은 야간 프로그램으로

불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해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지평선 청년농장과 청년푸드트럭 등 지역 농산물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은 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는 측면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0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신 김제 시민과 축제장을 방문해 재밌게 즐기고 간 관광객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한다. 함께한 20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20년 동안 지평선축제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고 축제에 동참해 준 김제 시민과 관광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온 가족 웃음 가득한 체험왕국,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가 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의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장으로, 어른들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육성축제로의 도약과 함께 준비한 아시안데이, 러시아데이는 그동안 축제장을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 농경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지평선축제를 찾은 국내 관광객에게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의 면모를 드러냈다.

특히 체험과 더불어 불거리 연출에도 큰 성과를 드러냈다. 도내 최초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지평선 가을 하늘을 수놓아 장관을 연출했으며, 벽골제를 밝히는 달빛 미러볼을 통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지평선의 밤을 선물했고, 벽골제 소원 한지등, 희망 LED풍선 날리기, 지평선 등불과 같은 야간 프로그램으로

불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해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지평선 청년농장과 청년푸드트럭 등 지역 농산물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은 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는 측면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20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신 김제 시민과 축제장을 방문해 재밌게 즐기고 간 관광객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한다. 함께한 20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20년 동안 지평선축제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고 축제에 동참해 준 김제 시민과 관광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풍요의 계절 가을, 요촌동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잇따른 사랑의 쌀 기부로 마을까지 풍요로워지고 있다.

## 김제 요촌동 ‘사랑의 쌀 기부’ 잇따라

한스, 백미 20포 전달

나눔문화 형성 보탬

풍요의 계절 가을, 요촌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송해숙)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잇따른 사랑의 쌀 기부로 마을까지 풍요로워져 소외계층에 행복한 가을, 훈훈한 가을을 선물하고 있다.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유)한스(대표 이근호)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백미 20포를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형성되는데 보탬이 되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또한 요촌동 자율방범대(대장 박승

훈)에서는 지난 3일 제17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리톤대회에 대원 20명이 모두 참여해 백미 20포를 기부하며 “우리 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율방범대로서 복지에도 앞장서는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한편 기탁된 백미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골고루 전달될 계획이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백미를 기탁해 주신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해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요촌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신바람 체조대회’ 어르신 열정 뽐냄

와일드푸드축제 기간

60세부터 90세까지 출전

완주군의 어르신들의 실력이 한껏 발휘된 체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완주군은 지난 7일 와일드푸드축제 둘째 날 ‘제8회 건강 한마음 생생 생생 신바람 체조대회’를 열어 어르신들의 열정을 내뽐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체조 대회는 13개 읍면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출전에 경쟁과 마을 회관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체조를 선보였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60세부터 90세로 그동안 마을마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한 건강마을 헬스존 만들기 건강하이(High) 원주하이(High)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신바람 체조대회는 운동실천 동기부여와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자리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나친 경쟁보다는 평소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 익힌, 건강운동을 발표하는 자리로 노년의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열정을 보여줘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모든 참여팀에게는 으뜸원주상과 상금이 주어졌으며, 특별상으로 비

방면 수박사랑팀, 봉동읍 봉동생강팀, 이서면 배꽃팀, 소양면 철쭉팀 4개팀에게 신바람응원상이 수여됐다.

이외에도 축제의 열기와 흥미를 더해줄 아코디언 연주 및 저글링쇼, 전문체조강사의 춤바탕쇼가 열려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박성일 완주 군수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어르신들의 꾸준한 노력,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보건소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 으뜸 도시 완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깊어가는 가을밤 ‘쇼 뮤지컬 천변카바레’ 뜬다

한국 창작 뮤지컬계의 대표적인 쇼 뮤지컬로 자리매김한 ‘쇼 뮤지컬 천변카바레’가 11일 오후 7시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쇼 무대로 깊어가는 가을밤을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찾아온다.

‘천변카바레’는 1960~70년대 급격한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는 서울의 이면을 시골에서 상경해 노동자, 웨이터, 배호 모창 가수로 변신하는 주인공 춘식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뮤지컬이다.

1970년 청계천변에 있는 ‘천변카바레’에서 이들이 겪어가는 사랑과 배신, 웃음과 눈물의 드라마, 지금 들어도 세련된 클럽 음악과 현란한 춤이 파노라마처럼 한편의 쇼로 펼쳐진다.

이날 공연에는 뮤지컬 배우 고영빈, 정운, 최형석, 하미미, 최정은 등이 출연해

1970년 서울 천변카바레, 반짝이는



네온 아래 흔들리는 춤과 음악.

오래 전 잊고 있던 옛사랑이 있는 곳, 천변카바레의 6070 클럽음악을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랜 추억을 떠올리며 깊은 감동으로 선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AM GOGWON